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 친목을 위한 보름맞이 율놀이로 모입니다. 오후 1시 30분 지하 친교실에서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졸업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27일)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22일(화) 오후 1시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푸른어린이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어머니 영어 교실이 3월 8일(화) 낮 12시에 시작됩니다.

신진식 씨와 변혜정 씨의 결혼예식이 26일(토) 낮 1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난주보다 육식을 한 끼 이상 줄여 보십시오.

- \* 식 당 봉 사 :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조병주 박경원 남창모 이소순
- \* 2/27, 3/6식당봉사 : 박홍재 차혜심 정연희 한상경 김현주 이광욱 정복순
- \* 설 거 지 봉 사 : 이국노 김민화 이주현 박시내 최은미
- \*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노우중 고은숙 박범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주현절 제7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0(통34). 전능왕 오셔서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환한 보름달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둠속에 갇혀 있을 때, 환한 빛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빛이신 주님, 참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주님,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린 채 자꾸만 빠거덕거리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존재가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한 생명 한 생명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5:9,10 ..... 인도자

♣ 교 독 문 ..... 14. 시편24편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73(통503). 고요한 바다로 ..... 다함께

♣ 성경봉독 ..... I. 사 4:4-9 ..... 박소진 선생

..... II. 창1:20-25 ..... 박시내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꿀벌, 번개와 함께 가다 ..... 손성현전도사

..... II. 조화로운 세상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박옥식 손성현 안경아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영남 김용길 최영해  
김준호 곽해자 문복순 최현선 백묘현 윤미경 윤수진 이재문 정복순  
홍순구 안홍숙 심상숙 이정은 무명

### 월정헌금:

김문주 배부례 송동준 김진경 송임희 이인웅 오송경 김혜권 박재임  
최철수 곽권희 조선환 이건화 정현선 변재민 이소혜 이영우 이윤석  
박안수 무명

### 감사헌금:

이정은 이태양 최선미 최종훈 김금하 연승민 서정순 이해인 주우탁  
정희선 박소진 김남중 오복순 원인해 이인웅 오송경 김대규 박경애  
조소명 무명

### 녹색꿈헌금:

문금석 변재민 이소혜

### 생일감사헌금:

심정아 심상숙

	장 해 속	백 해 속		백 해 속
	노 순 옥	정 경 레		서 정 순
	임 정 자	최 경 미		임 정 자
	문 영 혜	이 명 희		문 영 혜
	안 정 숙	진 정 숙		안 정 숙
	박 흥 재	곽 권 희	연 합 속 회	박 흥 재
	박 호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이 순 정	김 금 순		이 순 정
	이 형 숙	권 미 숙		구 성 실
	안 흥 숙	오 현 정		정 현 주
	정 영 선	이 현 숙		정 영 선
	이 영 란	박 미 영		방 극 숙
	박 해 경	조 향 미		박 해 경
	김 재 흥	오 자 영		교 회
	김 기 석	이 건 식		교 회

# 별나무

복효근

우리 집 늙은 감나무 아래 서서

고목이 되어 감도 열리지 않고

암팍에도 쓸모없는 것 베어버리고

좋은 대붕감이나 한 그루 심으라던 건너 골목 김씨

이 밤에 다시 한 번 와서 보라지

이 추운 엄동설한에도

나뭇가지 휘어지도록 별이 몇 십 개나

초롱초롱 맺혀 열려있는지

찬 양 ..... 427(통516). 맘 가난한 사람 ..... 다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흡족해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로운 삶을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이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벽을 쌓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좀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좀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겠습니다. 갈등의 세상을 조화로운 세상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보름맞이 율놀이	에스라·느헤미야서/ 김재흥 목사 기도 : 박범희 권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곽권희 권사	황경순 집사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권혁순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상익 하현철 박범희 고숙이 최성애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문영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까악거리고 싶을 때마다

혜자(惠子)라고도 불리던 혜시(惠施)는 장자(莊子)의 좋은 적수였던 모양입니다. 『장자』에는 장자와 혜시가 한 문제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번번이 장자가 혜시를 굶려먹은 식이기는 하지만요. 굶려먹기는 해도 장자 역시 혜시를 지기(知己)로 여겼습니다. 혜시가 죽은 뒤에도 장자는 그를 많이 그리워하면서, 혜시가 죽으니 나의 호적수도 죽었다, 고 한탄합니다.

생전에 혜시가, 어찌어찌해서 양나라의 재상 자리를 터억 차지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장자가 양나라를 지나다가 옛 친구 혜시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 수도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한 아침꾼이 혜시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라는 분이 찾아왔다는데요, 왜 왔겠습니까? 필시 그 세치 혀를 놀려 재상 어른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겠지요.」

귀 얇은 혜시는 그 말을 듣고는 사흘 밤을 전전공궁합니다. 도무지 장자 같은 걸물을 이겨먹을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장자가 불쑥 혜시 앞에 나타나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남쪽 나라에 봉황이라는 새가 살고 있다는데 들어본 적이 있나?」

「들은 적은 있소.」

「이 새는 어찌나 도도한지 벽오동 아니면 앉지도 않고, 대나무 열매 아니면 먹지도 않고, 감로의 썸물이 아니면 마시지도 않는다고 하네.」

「대단한 새로군요.」

「그런데 말일세. 까마귀 한 마리가 썸은 쥐 한 마리를 주워 이걸 먹으려고 하다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봉황을 보았네. 까마귀는 봉황이 썸은 쥐를 빼앗으려 온 줄 알고는, ‘까악’, 하고 울었네.」

「그랬소?」

「자네 지금, 까악, 하고 싶은 거지?」

「.....」

예수 그리스도의 책형(磔刑) 뒤에는 고소인에 해당하는 제사장 가야파와 재판관에 해당하는 유대 주재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가야파,

이자를 한번 집중적으로 씹어볼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고소인에 해당하는 대사제 가야파가 예수를 밭게 보기 비롯한 것은 예수가 성전 앞 환전상들의 환전대를 둘러엮고부딪습니다. 예수의 영향력이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던 저희들 공의회(公議會)에 위협적인 존재로 비친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가야파의 전임 대사제는 가야파 자신의 장인인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제직은 대물림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당시의 관례였던 모양입니다만 안나스의 사위 가야파는 물론이고 그 뒤로 아들 다섯에 손자 마티아스까지 대사제직을 승계했으니 완벽한 세습 왕조였던 셈입니다.

가야파에게 당시 성전은 대단한 수익 사업체였던 모양입니다. 성전 앞에서 거래되는 번제물과 제사용품 수익, 환전상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대단한 수입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가 예루살렘을 얼쩡거리면서 수익 사업체를 둘러엮으려 했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예수가 둘러엮은 환전상의 좌판이 당시에는 ‘안나스의 좌판(坐板)’으로 불리고 있었다는군요. 기소당하고 수모당할 당시, 예수가 유머러스한 분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말로 가야파를 굶려먹었을 텐데요.

「자네도 혜시처럼, 까악, 하고 싶은 거지?」

장자는, 붓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그것을 하늘로 아는 좁은 시야를 ‘붓대롱 시각[管見]’이라고 했습니다. 혜시의 ‘관견’에는 귀여운 구석이나 있지요. 가야파의 관견은 인류의 가슴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의 경험이 결국은 위대한 영광의 경험이 되기는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가야파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는 없는 거지요.

유심히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 주위에 까악거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주위를 살펴볼 것도 없네요.

혜시와 가야파..... 까악거리고 싶을 때마다 떠올려볼 만한 두 인물입니다.